

# 1.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 : 최현정 ☎2133-7505

의약무팀장 : 유희정 ☎ 7531

담 당 : 문선희 ☎ 7533

식품정책과장 : 양광숙 ☎2133-4700

식품정책팀장 : 유효연 ☎ 4702

담 당 : 김현경 ☎ 4731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관련 제도 개선 (보건의료정책과, '24. 9.19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국민 2.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이며,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의 주된 통로 역할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환자의 마약류 쇼핑 지속과 의료기관의 경각심 부족 등으로 마약류 오남용 발생 지속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제재 강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과징금(1일 3만원) 상향</li><li>- 과징금 부과 금지 규정 도입 및 과징금 부과 허용 횟수 축소</li><li>- 위반업소 명단 공개 제도 도입</li></ul></li><li>○ 오남용 의심 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 마약류 품목 대폭 확대</li><li>- 사전 마약류오남용 평가 의무 도입</li><li>- 마약류 오남용 우려환자 방문내역 고지</li></ul>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5조</li></ul>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광고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 추가 (식품정책과, '24. 8. 29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, 고열량·저영양식품,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TV 및 인터넷 광고 제한 (17시~19시)</li> <li>- 어린이·청소년의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, 첨가당의 주 공급원은 가당음료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·청소년의 가공식품의 첨가당 섭취 주 공급원인 고당류 음료의 광고 제한·금지 부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고 제한·금지 식품에 고당류 음료 추가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</li> </ul>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식품 영양표시 중 ‘당류·나트륨·카페인’ 강조표시 추가 (식품정책과, '24. 8. 29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, 국수, 유탄면류, 즉석섭취식품 등 일부 식품에서 나트륨 구간별(8단계) 표시 (단, 2,000mg 초과 시 적색 표시)</li> <li>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(간식, 식사대용) 지방, 포화지방, 당, 나트륨 함량 등급별 색상(적색·황색·녹색)으로 표시 (단,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적색 표시)</li> <li>- 영양표시 활용자(보는 사람)는 영양표시 인지자(아는 사람) 보다 가공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적게 섭취</li> </ul>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국민의 건강에 영향 미치는 당, 나트륨 등 영양표시가 일부 식품에만 강조 표시되고 있으며 그 방법이 상이하여 국민 혼란유발</li> <li>- 모든 식품의 당·나트륨 등 함량 표시 활용률을 높일 방안 필요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식품의 당류·나트륨·카페인 영양 표시 강조</li> </ul>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</li> </ul>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가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(식품정책과, '24. 8. 29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10%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만 39%, 고혈압 66%, 당뇨병 41% 높은 발병 위험 (제38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)</li> <li>- 비만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</li> <li>- 최근 5년간 아동·청소년의 비만을 급증: 9~17세 비만율 ('18.) 3.4% → ('23.) 14.3% (아동종합실태조사, 보건복지부)</li> </ul>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당음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,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·징수하고 있음</li> <li>- WHO 가당음료의 조세 부과 권고(2016), 45개 국가(영국, 스페인, 미국 등)에서 대부분 국세 부과 중이며, 우리나라 추진 사례 있음 (한국지방세연구원, 2021)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당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</li> </ul>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</li> </ul>	<p>보건복지부</p>